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동료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택시)시 구상권을 행사하는가?

2003년 4월 12일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피해자 Y의 진술서상 가해자인 B 및 피해자 Y는 사고이전에 일정지역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다른 회사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음주를 하였고, 이후 B는 조키가 택시를 대리 운전하여 먼저 출발하고 Y는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지역으로 영업을 위해 운전해 가던 중 Y의 진술에 의하면 이전 장소에서 다른 기사가 B에게 태우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돌아오던 중 도로상에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B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Y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가

해자인 동료근로자 B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지 또한 비록 동료근로자인 B도 다른 기사의 연락을 받고 태우러 가기 위해 영업용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중인 상태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원인이 도로상의 하자 등 사유가 없었으면 음주가 직접원인이므로 B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B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함이 타당하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귀 질의는 같은 택시 회사 소속 근로자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구상권행사 가능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재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고 가해자의 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

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산재 보험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사무집행 행위와 관계없는 사적행위 또는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함이 타당하며, 가해자의 행위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행위의 동기가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무집행"으로 보아야 한다.(관련판례 : 대법원 2000년 2월 11일 선고 99다 47297 판결)

또한 귀 문과 같이 가해자가 음주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영업을 위해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 동료근로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하여 동료근로자가 수상하였다면, 사고당시 가해자의 운행경로 및 음주 동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를 수행하였는지 또는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인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한국중립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저는 민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하면서 그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5개월 전 위 건물에 대한 자료를 매수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매수로부터 2년 이상 지체되었으므로 지상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하고 건물철거소송을 제기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의 주장이 정당한지요?

A 민법 제287조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자료(地料)액이 결정되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료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면 2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으나 위 자료의 지급지체액이 이

미 2년분을 넘고 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 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그 자료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 지상권자가 그 판결확정 후 자료의 청구를 받고도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동안 자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지체된 자료가 판결확정의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이상 자료의 지급을 지체하여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료액이 확정판결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체액이 2년분을 넘는 경우 위 甲의 지상권소멸청구권행사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Q 칠 뿐만 아니라 신경이 날카롭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서양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가 건강이라 했다. 우리나라에는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속담이 전해져 온다. 건강은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라하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습관적으로 행해져온 우리의 행동 하나가 건강을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좀 더 현명한 생활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A **〈끝〉**
☞의정부 수 한방병원 (031-820-7200) www.ijhrbng.co.kr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행복한 성생활을 위하여

A 옛날에는 표현이 안되었지만 갈수록 성문제는 가정 행복과 부부행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 부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성적인 불만을 가진 부부가 74%에 이르는 반면 부부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는 1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족하지 못한 부부들 중에서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는 부부가 56%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혼사유율의 90%가 솔직하

게 알고 보면 성적 부조화와 불만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성에 대한 자세와 실제 성생활을 위한 테크닉의 개발도 필요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을 때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남녀를 동일한 방식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들이 동일하다고 가르치고 남녀가 상호 교환적으로 상대방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남녀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를 백열전구에 여자는 전기다리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여자의 경우에는 충동보다도 분위기와 접촉을 통한 애정표현에 더 의지하고, 남자보다 더 여유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녀의 차이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그 갈등의 대책을 생각하고 있으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아내보다 더 충동적인 남편의 요구에 아내의 가급적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편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로부터 충족 받기를 원하는 필수조건인 제1위는 '성적인 만족감'이라는 연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의 성적 특성을 이해하여 아내가 만족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관계는 평등한 것이며 서로 보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만족을 위하여 성교를 시도하며 애무하고 성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치과 과장 **오주은**



Q **우리아이의 충치관리**

A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출생·사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전년보다 감소, 세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1명이나 2명의 자녀만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1-2명의 자녀만을 최선을 다해 잘 키우겠다는 거저지오, 그러면 우리아이를 잘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중요

가 같이 있는 시기에는 충치가 발생하기 쉬우며 일단 충치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이때에는 꾸준한 치실질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충치 유무를 검사해야 합니다. 진행이 빠른 충치의 경우 검은색보다는 흰색에서 갈색까지 여러 색으로 나타나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집에서의 검사로는 발견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엄마의 치료시 따라왔다가 검사나 한번 해보자 하여 구강 검사시 여러 개의 충치를 확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엄마들은 집에서 볼 때는 충치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며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충치가 확인되었으면 물론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충치를 제거하고 충전하는 재료의 선택은 치과에서 많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포천병원 (031-539-9114)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주한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습니

A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양, 취득했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임대료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으로 임대료를 하면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하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의 양면성이 있는 부동산으로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각종 세금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각 유형에 따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보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외에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1세대 3주택에 대한 60% 종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등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나,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오피스텔뿐이고 3년 이상 주택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으나, 오피스텔 양도 시에는 자신의 상황에 따른 절세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 박운중 031-872-6116

“일번지 암소이동갈비가 새로운 메뉴를 선보입니다”

1층 돼지갈비, 암소이동갈비

신메뉴 출시

2층 풍천민물장어 · 동태탕 · 동태찜



자연산장어 민물장어 동태탕 동태찜



250석 보유, 연말연시 예약중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49-4
대표 김애화
031) 542-1887~8